



### 찬송가 많은 찬불가

“찬불가는 찬송가를 흥내 내어 부르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을 한다. 이러한 말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찬송가는 용어자체가 일반화되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찬불가는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찬불가가 가락이 찬송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현재 불려지고 있는 찬불가는 대부분 가사만 찬불가 가락은 찬송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찬불가는 찬송가를 흥내 내어 부르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다.



통불교음악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을 작곡자들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그 음악의 특징이 가미된 새로운 찬불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서양음악 기법에만 의존하여 불교음악과 무관하고 국적마저 알 수 없는 그런 찬불가를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불려지는 찬불가는 보다 다양하고 폭 넓게 작곡되어 불자가 아닌 대중들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가 부르는 찬불가로부터 어른이 부르는 찬불가, 그리고 대중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찬불가가 창작되어 불려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찬송가는 의식뿐만 아니라 생활음악으로 일찍이 자리 잡았다. 노래방에서까지 찬송가를 부른다. 찬불가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의식에 불려지는 찬불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불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획과 남다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작곡가 육성에서부터 불교음악 연구자들을 길러내야 한다. 사찰마다 불교음악전공자들을 기용해서 예불의식에 불교음악을 연주하고, 전문 합창단이 찬불가다 찬불가를 노래하고, 대중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노래방에서, 찬불가를 노래할 때, 16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한국불교가 그 찬란한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박범훈(중앙대학교 국악대 교수)

### 조계종 제1 차 포교정책연합회 지상중계

## 종단·신도 수평관계서 시작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는 시대적 조류가 한국 불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이러한 변화를 포교환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단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신기술의 발달로 기성종교 및 신종교들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와 종교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이 유통되는 장이 제공되고 있다”며 “정보사회 및 인터넷과 불교 사이의 친화성을 높여가며, 불교 시민사회 형성과 국제 연대 및 자유로운 이종 등의 속성을 가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귀결되고 있다”며 “불교계는 불교리, 종단의 정통성, 불교의례 등 불교 기본적 가치들을 정립해 신념체계의 혼란을 막고, 불교 본래의 보편성을 회복해가며, 불교시민사회운동 등 사회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중앙승가대 본각 스님과 부산 포교당의 심산 스님 등은 사회적 변화모습과 실질적으로 단위 사찰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다른 것 같으며, 이보다 어린이·청소년 등 불자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등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포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린 포교정책연합회 현장.

### 기본가치확립·사회참여 병행 필요 인터넷·각종 결사운동 등 적극 활용

이날 연합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포교정책은 기존 종단중심적 인 상하수직적 인 관계에서 벗어나 종단과 신도가 서로 돕고 이끄는 수평적 관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불교의 기본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인터넷 등의 매체 활용과 대내적인 사회활동 강화 등 포교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박수호 산업연구원(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은 ‘정보화 시대의 포교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통신, 신형결사운동과 리더십 강화, 전문화·협업화를 통한 개방형 조직체계로의 전환, 차별화 및 주도적 연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한국사회의 변화, 그리고 불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세계의 흐름이 무한경쟁과 유연성, 불안정성, 그리고 다. 또 동국대 조준호 강사 등 사회학자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노동당 활약 등 국내정치의 지형변화와 남북문제, 시민사회운동 등 국내의 독특한 사회현상에 대한 입장정리와 방안마련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포교원은 앞으로 8차에 걸쳐 포교정책연합회를 진행, 향후 ‘포교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ipok@buddhapia.com

## 한·중·일 북경서 만난다

### 제7차 교류대회 10월22~24일

제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 영광사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일 불교우호교류협의회 등 한중일 3국 실무대표단은 4월 26일 중국 해남도 삼아시에서 예비회의를 갖고 제7차 교류대회의 일정과 장소 등을 확정했다.

이런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평화위원회, 3국 학술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예비회의에는 한국측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원효종 총무원장 무진, 조계종 총무원장 성관, 태고종 총무원장 월해,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해인, 총지종 총무원장 지성 스님 등 중국측의 중국불교협회 상무부회장 성호위 스님, 일본측의 영평사 구마가야주교 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병영 기자

### “법장스님 티베트 오세요” 中 대표단 초청

중국공산당 우호대표단이 티베트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공식 초청했다. 귀진룡(郭金龍) 티베트자치구 당서기 등 중국공산당 우호대표단은 4월 27일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티베트에서는 종교 및 신앙 자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티베트 사람들을 대부분 티베트 불교를 믿는다”며 “중국 방문 시 티베트를 방문해 줄 것”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법장 스님은 “중국을 방문할 때 방문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대회와 재중동포 및 불자들의 중국 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남동우 기자

### ‘신도조직의 유형...’ 포럼 개최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종교조직에서 신도의 역할과 신도운동의 전망과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제2차 정책포럼’을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중앙신도회 정책위원회와 신도·포교단체 주요인원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이한태 순천향대 강사(前 원불교 교무)의 ‘신도조직의 유형과 발전방향’이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한태 강사는 한국 근대 신종교로서 원불교의 성립과 조직적 특성 등을 집으며 “원불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민중의 선도적 역할 담당, 수평적 조직구조와 조직력 등에 있다”며 “이러한 점을 불교계 신도조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 범어사 11일 대성스님 주지진산식

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범어사는 5월 11일 오전 11시 대성 스님(사진) 주지진산식을 갖고 범어사 안장에 박자를 가하게 된다. 범어사는 진산식을 앞두고 7국장직을 비롯 주요 종무 소임 스님들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총무국장 장원범, 포교국장 무관, 사서국장 정산 스님 등이 임명돼 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범어사는 이번 진산식을 주지 선출을 둘러싼 갈등,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으로 실추된 범어사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천희희 기자

**본사사령**  
강유신  
총 편집국 취재부 기자  
2004년 4월 27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부처님 오신날을 함께 기뻐합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봉축메시지 발표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기뻐합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마이클 피츠제랄드 대주교는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4월 26일 불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다는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마이클 대주교는 ‘인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눈을 돌리자’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오늘날 수많은 어린이들이 가정을 빼앗기고 심지어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채 살아오고 있다”며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과 불교인들은 어린이가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데 모든 힘과 자원을 동원하고 특히 빈곤국 어린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손길을 뻗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정부와 시민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 복지를 위해 힘쓰게 하자”고 제안했다. 강유신 기자

# 범어사 주지 진산식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금정산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의 진산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5월 11일 (음력 3.23.화) 오전 11시
- 장 소 : 금정산 범어사 대웅전 앞
- 연락처 : 부산광역시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종무소 ☎ (051)508-3122~7  
원주실 ☎ (051)508-3636

※ 범어사 주지 진산식을 맞아 5월 10~12일 3일간 무료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